

일한 아시아 기금 뉴스레터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2010년 1월 No. 32

캄보디아 소식

유치원 통학 버스 운행 개시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르세이산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의 원생 수를 늘리기 위해 통학 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11월 2 일자로 무사히 계약을 마치고 버스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원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버스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학 버스 운영을 대대적으로 알린 효과도 있어 연초의 원생 등록수는 52명(작년 43명)으로 9명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버스가 운영을 개시해 약 1개월이 경과한 11월말의 단계에서는 정기적으로 결석 없이 유치원 오는 원생의 수는 25명 전후 (많을 때는 32명)이며 이도 작년 16명 전후와 비교해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버스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2회 왕복 (많을 때는 3-4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르세이산 유치원에서는 원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을 위해 유치원 측의 요청으로 테이블과 칠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직은 첫 달의 보고이기는 하나 원생의 수는 작년 대비 10명 증가하였다 해도 당초의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현지의 보고에 의하면 연초에 등록한 수에 비해 실제로 등교하고 있는 원생수가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목차~

캄보디아 소식

유치원 통학 버스 운행 개시	1
부족한 교과서 보충의 성과와 향후	2
연하장 수신인 쓰기에 참가	4
인도인의 인생관	
지구인들이여 모여라!	
- 히비야 공원에서 나누는 우정	5
스텝 소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지름길	
- 비빈의 모임을 둘러싸고	6
쉬운 「역사의 벽」을 넘는 방법	7
사무 연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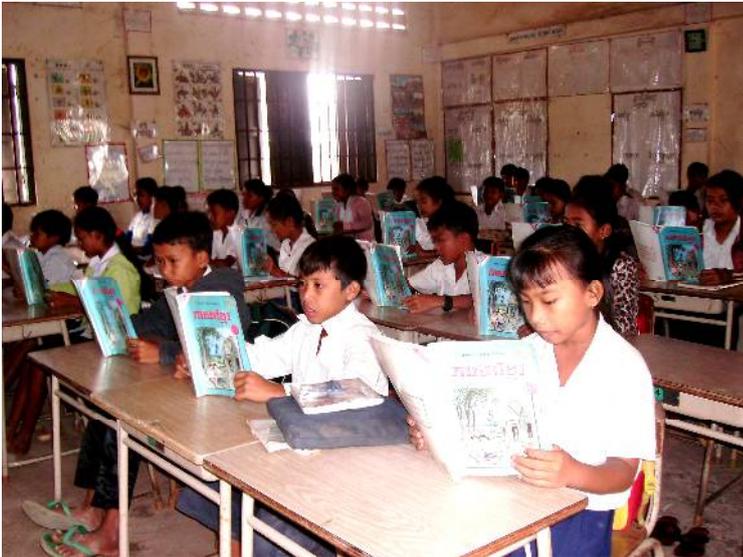
하나, 학부모들이 수확기이기 때문에 논밭에서 일을 할 때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이며 (이는 작년에도 가장 큰 이유로 뽑혔습니다) 두 번째는 하필이면 11월에 감기가 유행을 하여 병가가 많았습니다. 병가와 어쩔 수 없는 이유이지만 현지에서는 앞으로 원생의 수를 한층 늘리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거나 촌장님이나 학교 위원회가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도록 설득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앞으로 감기라는 특수요인이 사라질 것과 촌장님이나 선생님들의 계몽활동으로 원생수가 증가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침으로는 이 프로그램은 우선 1년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며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 통원하는 원생 수의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단계에서 비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통학 버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므로 향후 새롭게 검토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과 달리 버스 프로그램은 최악의 경우 인명과도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NGO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NGO 관련 법령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령에 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부족 보충

지난 번 뉴스레터에서 보고한 대로 르세이산 초등학교, 와트·하-초등학교에 각각 합계 570권, 827권의 교과서·교원용 교재·사전등을 구입해 기증했습니다. 일한 아시아 기금에서는 두 학교로부터 본 교과서 프로그램과 통학 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 후의 상황·향후의 과제·개선점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여러분, 일본의 스태프이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목적 뿐만이 아니라, 보고나 제안을 요구함으로써 현지 사람들에게 단지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교육 환경의 개선에 임하는 의식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교과서 보충에 대해서는 향후 르세이산

초등학교, 와트·하-초등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일한 아시아 기금은 활동 평가 기준(교과서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나 비용대비 효과)을 확실히 정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두 학교의 교과서 제공 후의 상황을 파악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제공한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현지의 첫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성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1. 월차 시험의 점수는 대체로 70점~85점, 4분기마다의 시험의 점수는 80점~85점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향상되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이들이 전과 비교해 글자를 보다 능숙하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집에서 숙제가 가능해져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교과서를



미리 읽어오므로 수업 시작 단계부터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3.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가 예습을 하고 오므로 전보다 설명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을 아이들이 모두 받아적었어야 했지만 교과서가 있으므로 전부 받아쓸 필요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관리도 수월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로 인해서 아이들의 출석률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원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답례 인사입니다. (발췌)

선생님 : 「일한 아시아 기금의 여러분이 지원해 주신 교과서와 교원용 교재는 수업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도록 앞으로도 일한 아시아 기금의 여러분과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 「교과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과 달리 읽기가 능숙해 졌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교과서를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스태프 일동은 시험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부터 시작해 나날이 수업 중에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많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방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의식에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한 단계 발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에서는 교육 환경의 향상을 위한 책임감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다음 학년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도 일한 아시아 기금이 교과서를 제공하기 전에 리티씨를 통해서 전해 준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로 향후, 리티씨를 통해서 현지의 다른 초등학교로 교과서 제공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서서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치이)

연하 엽서 수신인 쓰기 자원봉사에게 참가해 아카츠키 우이헤

2009년 12월 27일(일)에 아시아 문화 회관에서 진행된 연하 엽서 수신인 쓰기에 자원봉자로 참가했습니다. 같은 달에 논문 조사도 겸해 앙코르와트 하프 마라톤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가한 적도 있어, 일본에 있으면서도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심의 좁은 길을 지나 간신히 아시아 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이 참가하고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제 협력단체의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그분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포츠 쪽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자원봉사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활동은 스태프들의 적절한 지시와 초반에 자기소개 시간의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2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 후에 가진 다과회는 좀 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취미 얘기부터 장래에 관한 얘기까지, 초면이라는 생각이 안들만큼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 후 저는 스태프의 일원이 되었고 앞으로 스태프로써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인도인의 인생관 오오니시 나오미

12월의 중순에 남 인도의 코친, 서인도의 프네에 다녀 왔습니다. 남 인도의 카타칼리 댄스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를 소재로 한 케라라주 특유의 무용극으로 역할에 따라 원색으로 얼굴에 칠을 해 눈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연기를 하는 아주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인도에 머무르는 동안 요가체험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일본에서 체험한 요가와는 달리 인도의 요가는 요가의 정신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만물에는 각각 힘(신)이 머물고 있어 자신도 커다란 자연의 일부인 것으로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 중에서는 힌두 정신, 칼마 정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주어진 칼마 (캄보디아의 교육에 공헌하는 일)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인 모여라! 히비야 공원에서 나누는 우정

사쿠마 사나에

「원가 국제관계 관련 자원봉사를 해볼까」 인터넷으로 찾아낸 새로운 만남

그것이 일한 아시아 기금의 자원봉사 모집 페이지. GLOBAL FESTA JAPAN 2009 에 참가한 것은 나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일한아시아기금의 활동에 대해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는 일은 모두 스태프 여러분의 열정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GLOBAL FESTA 는 각각의 부스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모든 부스를 방문하기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NPO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관련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신 분을 많이 만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틀째에는 기분 좋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준비했던 활동을 설명하는 팸플렛이 모자라고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기념품이 동이 나는, 이 모든 것은 스태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내년도의 GLOBAL FESTA 에 오셔서 히비야 공원에서 펼쳐지는 작은 지구를 경험해 보실 것을 기원합니다.

스태프 소개 메이지 학원 대학 학생 마츠오 아사미

저의 일한아시아기금과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가게 된 GLOBAL FESTA 에서 저는 한국에서 단기유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한아시아기금의 부스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사진과 스태프의 정중한 설명으로 「도상국에 대한 국제 원조」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비빈의 모임이나 뉴스레터 발송 작업 등에 참가했습니다. 작년 2 월~7 월까지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스태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일한 아시아 기금과의 만남이었고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시아가 좋아서 아시아 쪽으로 자주 여행을 갑니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시아의 사람은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친절한 사람이 정말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캄보디아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저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웃는 얼굴을 실제로 보고 좀더 캄보디아를 가깝게 느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크메르어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서 「불황, 불황」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초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세계로 눈을 돌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지름길 -비빔 모임을 둘러싸고-

리 유연 카이 회사원 말레이시아

일본거주 약 10 년, 자주 「일본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좋고 싫다기 보다는 일본 생활이 당연해졌고 마치 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이제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리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쓸쓸함과 허무함이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있는 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위의 어른들에게 2 차 세계대전의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음악이나 만화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말레이시아에 온 일본학생과 알게 되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우리들과 다를 것도 없는 희로애락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체류기간이었지만 매우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빈의 모임에 참가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문화 차이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 10 년 전에 일본에 왔을 때의 저의 모습과 닮아있었습니다. 혼자서 살아야 하는 불안감, 이해할 수 없는 불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힌 나날들이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비슷해서 기쁘고 달라서 즐겁다」라는 대사를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들었습니다. 비빈의 모임에 참가해서부터 이 말의 의미를 스스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상식이 한국에서는 비상식적이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교해보면 공통되는 부분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으며 동시에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똑같이 본능적으로 다름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다름에서 편견이 생겨나도 그 편견이 분쟁을 낳는다고 어느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물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이야 말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빈의 모임에서 자주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지만 소개함으로써 뭔가 달라질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고도 먼 존재라고 일컬어지는 한, 중, 일 3 개국의 거리를 좁히는 최선의 방법은 비빈의 모임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인식을 좁히는 일일 것입니다.

본 칼럼은 30 호 「한글은 무슨 언어?」, 31 호 「왜 일본이 좋아?」에 이어 3 번째(최종회)가 됩니다. 우선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에 대해서, 다음에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주로 역사적인 원인을 바탕으로 써보았습니다. 처음에 뭔가 써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귀중한 뉴스레터에 이렇게 긴 페이지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쉽게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미흡한 글솜씨지만 한 번 써내려 가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일양국의 역사관의 차이에 대해서 귀중한 의견도 받았습니다. 「한일 역사의 벽을 넘어서」라는 취지로 설립된 「일한 아시아 기금」이므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좋아하는 외국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웃음) 일본의 지도나 국기를 화이트 보드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미국인 강사는 제일 처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 국기의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합니까?」라고. (원폭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요.)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또는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에게 또는 세계에게 일본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는 분명 일본 내부에서 보는 시선과는 완전히 상이하리라 생각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시선에 주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는 이 순간 뉴스레터를 손에 쥐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익숙치 않은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3 번에 걸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단지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라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바뀔지만 서양의 사상 중에서 한 줄기를 만들고 있는 사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일단 어렵고 수 많은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상입니다. (웃음)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스트」는 「이후의」라고 하는 의미이며 「모더니즘」이란 모던 modern, 즉 근대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역하면 「근대 이후」입니다. 근대 이전의 인간은 신이나 임금의 권위에 묶여 있었습니다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으로부터도 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지식을 추구하며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진리」에 다다른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도 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지식을 추구해 얻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진보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은 무서운 학살이나 박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파시즘·제 1 차 세계 대전) 그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근대」사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유일하며 고정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그러므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언제라도 그 때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사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의 한계를 의식하고 항상 의심하며 항상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조금 도전적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저는 한일의 「역사의 벽」을 넘는 방법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문을 가질 것. 단지 「한글」과 일본어는 닮았네요」가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은 매년 8 월이 되면 일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더라」가 아니라, 「어째서」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 「어째서」가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일, 나아가서는 「역사의 벽」을 넘는 것으로 이어지

않겠습니까? 타이틀과 달리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지금까지 길러 온 우리들의 지식·언어·세계를 뒤집어 머리를 (때로는 마음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온사마를/JPOP 을 좋아할 뿐인데...골치 아픈 일은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런 분에게 저는 더더욱 말하고 싶습니다. 「자주 없는 일이니까 좀 더 들여다보지 않을래?」라고. 걸로만 좋은 척 사이 좋게 지내는 것 만으로는 언제까지나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없습니다. 비록 내키지는 않더라도 (웃음). 이제 곧 한 발 내디딜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옵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유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달러의 가치는 날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나라들도 머지않아 닥칠 달러 붕괴에 대비해 달러 의존·미국 의존의 경제체제를 재검토하며 유럽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역시 흔하지 않은 기회니까 서로 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라고.

금번 이벤트에 자원봉사 스태프로 참가 해 주신 분 (존칭 생략)

11 월 8 일 뉴스레터 31 호 발송 작업 요원

安井将人·永井茜·金慧珍·金仁淑·佐藤裕美子·南塚由美子·浦睦世·溝江友里子

12 월 19 일 제 11 회 비빈의 회 그룹리더-

이미진·김지윤·박노민·秋山卓澄·小森新·島田凉子·高藤里紗·平野真衣子·前田芳孝·横田麻未
吉原海·李文凱

12 월 27 일 연하장 수신인 쓰기

千葉まゆみ·佐藤由美·原口彩·小橋公子·南部真喜子·北村宏大·竹嶋梓·赤塚友梨恵·篠田由希·竹田七
奈子·宇賀神瑛子·山本涼子·森田冴美·井上茉稀

09 년 11 월 3 일~10 년 1 월 9 일에 회비·기부를 주신 분 존칭 생략·별도 기준을 제외하고
오십음도 순서

縣 勇兵	語ろう会	田中 慶子	中川 敦司	古川 起與子	森 健造	若宮 英生
大塚 紀子	川辺 寛子	田村 敏彦	長島 和子	堀内 和子	谷池 教子	渡辺 京子
大町 卓也	工藤 早苗	丹下 誠司	中田 邦雄	堀場 秀亨	山口 忠正	渡部 友理恵
小川 昭子	曾根 文子	チラタ会	比嘉 房雄	松田 明美	山越 栄子	渡部 澄江
小川 裕美	高柳 直正	佃 吉一	福島 忠男	満井 啓二	吉田 美夏子	

日本聖公会 川越キリスト教会

입회·기부 요청

활동회원 : 연회비 5,000 엔 (학생, 미성년자 2,000 엔)
 찬조회원 : 연회비 1 계좌 5,000 엔(학생, 미성년자 1 계좌 2,000 엔)
 법인회원 : 연회비 1 계좌 10 만엔
 기부 : 2,000 엔 이상 (금액 상관없음)

<우편대체 계좌>
 계좌 번호 00180-2-25153
 계좌명 일한 아시아 기금

- 활동회원 :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 가능한 분. 총회 의결권이 있습니다.
 - 찬조회원 : 정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분.
- 지원 해 주신 분에게는 「일한 아시아 기금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우)113-0021 도쿄도 분쿄구 흥코마고메 2-12-13 아시아 문화 회관(ABK) 내
 Tel : 090-4456-2942(서무·회계 담당 오오사와) FAX : 03-3946-7599(ABK)
 E-메일 : jkaf@ml.infoseek.co.jp

HP : 검색 사이트에서 「일한 아시아 기금」으로 검색 해 주세요.

발행인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일한 아시아 기금·일본 대표이사 에모토 테츠야